

보디 시즌버

AUTUMN

2012년 가을호
통권 96호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http://jungtoh.org>

2013학년도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안내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심리치유 전문기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원입니다. 불교의 사상과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멋진직업 + 영적성장)

>> 입학안내

□ 지원자격

1) 지도자과정

- 학사학위가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 - 4학기 석사과정 - 5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덕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사학위 취득

□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문의

- 수시상담을 통해 입학 안내
- 전형서류 제출기간 : 11월 29일 ~ 12월 14일
- 전화 : 행정실 052) 255-8500, 010-4656-0180
- 홈페이지 : <http://mahacounseling.com>
- Daum 카페 :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디Bodhi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사슬을 벗고

열반에 이른 상태를 말하며

사트바Sattva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맑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 04 **여는 글**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풍경 | 능행
- 06 **기획 특집** 대만 공승재-88인의 대만 성지순례 | 편집부
- 08 **선지식 초대**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 이길수
- 10 **공덕의 향**
- 11 **영어로 만나는 법화경**
- 12 **능행스님의 꾸띠**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상담 | 편집부
- 14 **수행도량**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16 **명상 카툰** 아름다운 공존 | 용정운
- 17 **보디사트바 향기** 참수리 봉사단 | 백현진
- 18 **특별한 법회** 네충신탁과 화공법회 | 편집부
- 20 **아름다운 얼굴** 스님 | 편집부
- 22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마음의 창문을 많이 만드세요 | 김영환
- 24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대문 옆에 피어난 참꽃 | 능행
- 27 **아름다운 동행** 청주시청 | 안미희
- 28 **스님들의 채공이야기** 고구마잎나물 | 연호, 만옥
- 30 **호스피스병동 정토마을** 흰 연꽃 핀 정토마을의 여름 | 혜연
- 32 **이야기가 있는 풍경** 하나_그들의 아름다운 동행 | 정미혜
- 34 **둘_정토마을에선** | 동석
- 36 **만화로 만나는 트락** 새둥우리 선사 | 최영순
- 37 **말풀이**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 민대식
- 38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소식**
- 40 **자제병원**
- 41 **정토마을**
- 42 **CPE 교육안내**
- 43 **36기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 안내**
- 44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총회 및 3주년 기념 세미나**
- 45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정토가게」 · 아띠울**
- 46 **정토마을 · 자제병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 47 **자제병원 함께 만들기**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2012년 9월 17일 · 발행 · 편집인 능행 · 등록 울산바01004(2008. 4. 11.)
· 기획위원 배성권 민대식 이길수 · 편집위원 남정 김경오 엄수현 안미희 백현진 · 사진 김충진 · 편집장 수필
·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 전화 043)298-2258
·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디자인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전화 051)255-0263 / 팩스 051)255-0953
· 기획 아띠울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제작 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풍경

능 행 |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들판에 나락이, 익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후원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사랑을 기원드립니다. 이곳 언양 건축 현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옆길로 돌아 나가서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입니다.

후원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바람과 비로써 지구의 오염을 씻어 주고자하는 자연의 강한 움직임을 보면서 자연의 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못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 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시시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재병원 전체 공정은 약 60%정도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뛰어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올여름 내내 무엇을 했는지 많이 분주한 한철이었습니다. 그저 매미가 나뭇잎에서 목이 터져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 약 22여명,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의사 각1명씩, 사회복

지사 1급 2명, 의무과 행정 2명, 교육 트레이너 1명, 임상병리 및 물리치료사 각각 2명 등 다양한 측면의 자원봉사자 지원자들과 팀들의 참여가 이제부터 필요하기 시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들이 계셔 주셔야 자재병원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적절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갖고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해 드리겠습니다.

선들선들 바람이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점차 높아지고, 가을이 오는것 같은데...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기쁘게 남은 추억들 만들어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우리 후원자님들 가슴 속 사랑을 키워 이웃과 나누는 여정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시 한 수 낭송해 드립니다.

담쟁이 -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절망의 벽’을 담쟁이 잎은 결코 뛰어 넘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기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이란 곳은 흠 한 톨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곳 그 곳에서 담쟁이는 벽에 살면서도 저렇게 푸르구나 싶었습니다.

속도가 늦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하지 않으며 마침내 절망적인 지금의 환경을 인간의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질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벽을 오르겠습니다.

“담쟁이가 담을 붙잡고 자신의 이파리를 푸르게 피워 가는 것처럼 나는 나의 간절한誓願을 붙잡고 후원자인 당신의 손과 손을 이어 잡고 말없이 담을 넘어가겠습니다.” ㅍ

88인의 대만 성지순례

편집부



정토마을 공동체는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성지순례'를 주관하여 총 88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만 불광사 법고산사 자제공덕회 등 현대 대승불교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대만불교를 보고 배우며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조명해보는 계기를 삼았다.

불광사의 공승법회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백중을 맞아 하안거동안 수행하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현재의 부모와 조상이 삼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음을 설하신 것'에 유래하여 재가불자들이 전 세계의 스님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통해 공덕을 짓고 신심을 다지게

하는 거룩한 의식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순례단 88명은 대만불자들의 공양을 받으며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고 그들의 질서와 정성스러움에 감탄하였다.

불광사의 성원스님은 공양의식의 법석에서 금강경 서분의 첫구절 「여시아문 일시불재사위국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천이백오십구 이시세존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결식 여기성중 차제결이 환지본처 반사홀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가 바로 공승법회 의식의 시작이고 이를 재현한 것이 지금의 '공승법회'라고 하며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였다.

“탁발시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차이를 두지 않



고 평등하게 탁발하는 것이 공양이다.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이다. 탁발마치고 기원정사에서 발을 씻고 자리에 앉은 후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고 이어서 신도들에게 이어졌다. 이것이 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까? 그것은 탁발 하나하나의 모습이 반야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고, 길을 걸으면 발에서 빛이 나고, 탁발을 하면 입에서 빛이 난다. 마지막으로 모든 탁발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몸과 마음에서 빛이 난다. 빛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없다. 비록 3년 동안 빛에 노출되지 않은 어두운 암실이라 하더라도 비추기만 하면 밝아 질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공승법회에서 우리 모두가 방광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내 말을 못 알아 들었을 지라도 지금 내 말에 박수치고 있는 여러분의 손이 빛이 난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신구의(身口意)가 더 빛이 나길 기원한다.”

이어서 순례단은 자제공덕회의 자제병원과 자제대학을 방문하여 중엄스님의 원력 아래 교육과 의료의 두 가지 목적사업을 실현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자제대학은 자선교육·인문교육·생명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986년 자제의과대학을 세우고 2000년도에 자제종합대학교로 바뀌면서 인재를 직접 조달하고 중생을 보살피는 인력을 자체에서 조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도들은 봉사자로 입회하여 중생들에게 봉사를 통해 보살행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옷 색깔은 봉사자는 푸른색을 의사는 흰색을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 푸른 하늘과 흰구름을 나타낸다. 특히 노란조끼는 봉사자들에게 스님들의 가사와 같은 의미로서 격식을 갖추어서 입게 되어 있다. 봉사자들은 옷을 입는 동시에 삼의를 입는 출가자의 마음과 같이 변하여 인간사회를 돕는 보살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진 범고산사는 임제의 선택을 이어온 열반하신 성엄선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평화뿐 아니라 외적인 질서와 침묵이 동시에 발전하고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과 교, 내외의 일치가 온전할 수 있도록 자재(自在)를 추구하는 곳이었다.

성엄법사의 108자재어 중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려면 욕구를 줄이고 자족하고, 사회를 정화하려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향기롭게 하였다.

위 세 곳의 사찰은 대만인구의 80% 이상을 불자로 만들며 불국토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라 할 수 있다. 88인의 성지순례단은 현대의 불교가 지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4박5일의 여정을 통해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卍



육조단경 법문을 신도록 허락 해주신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을 찾아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수불큰스님 | 범어사주지 · 안국선원장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일향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국집한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속에 선지식이 있어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선지식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선지식이 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역량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려하지 않고 밖에서 선

지식을 구할려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에 이해와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보려는 뜻이 드러나면 다 상근기입니다. 불법에 인연이 있으면 상근기요 불법에 뜻을 두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면 하근기이나 부처님은 상.중.하에 관계없이 모두 상근기로 바꾸어 중생이 마음을 깨닫게 장치하여 그런 모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녀 부처님 가까이 오기만 하면 깨달음에 들 수 있는 눈을 열고 깨닫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 법이 갈수록 멀어지면서 불법은 그 대로 존재하고 믿고 행하나, 실제 깨닫는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만약 깨닫는 이가 많아진다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텐데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선하고 공덕지이라 하는 말은 수없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공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게 얹어매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고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고를 구축시키고 더 많은 사람한테 불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부처님처럼 불법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솜씨를 지닌 사람이 과거보다 더 많이, 미래에도 더 많은 사람이 참 눈을 열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치해 줄 수 있는 많은 인연이 거둬날 것 같으면 세상이 왜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망령된 삿된 마음이 있다면 선지식이 그것을 제도해주려는 인연이 되어졌다하더라도, 자기의 망령된 생각, 미혹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만 간다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제바달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스켜 관조한다면 한 찰나에 망념이 모두 없어지나니 이것이 바로 돈소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성을 알아 한번 깨달으면 단번에 불지에 이르느니라.

번뇌망상이 바로 보리 열반이 됩니다. 한 생각 탁 돌이키면 사물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단번에 불지에 이를 수 있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卍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는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청토마을 주관
대만공승법회와 대만 자계공덕회의
자계병원 순례를 함께하신
동학사 관음암 주지이신
부현스님께서
청토마을 자재병원 건립을 위해
1천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스님의 크신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hey will each, according to its germ, acquire a regular development, growth, shooting up, and bigness. And so they will produce blossoms and fruits, and will receive each severally, their names.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一雲所雨 稱其種性而得生長 華果敷實

- 묘법연화경 약초유품 중에서 -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상담

편집부

능행스님의 꾸띠 (<http://www.nhbkt.com/>)

(꾸띠는 '토굴'의 산스크리트어)

Q

스님 안녕하세요? 불사하시라, 환자들 돌보시라, 너무 바쁘신 스님께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집 근처의 사찰에 49재를 올려드렸습니다. 머느리된 도리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아쉬움과 못해드린 죄송스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스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그했군요. 함께 살 때는 우리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잘 모르다가 떠나고 빈자리가 땡 하니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 알게 되지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특별히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참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49재를 모셨다하니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찾아뵈옵고 「아미타경」을 독송하여 드리며 '나무아미타불' 염불 또한 해드리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무량수불 왕생 정토 다리니'를 매일 108번씩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Q

스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가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재병원에 큰 피해없이 지나갔다하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버지가 스님을 찾아뵙고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 안심했었는데 또다시 고통 속에 계십니다. 몸의 고통(체장압)과 마음의 고통이 동시인 것 같습니다. 스님을 다시 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얼른 자재병원이 완공되면 좋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

일단 병원에 가시어 통증을 먼저 조절해드려야 합니다. 여의치 못하면 청주 정토마을에 가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영적 돌봄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많이 함께 계셔주세요. 많은 말은 필요 없겠지만, 자식이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여주세요.

Q

스님 건안하시죠?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교육 중 스님의 염불송(念佛頌)을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염불송을 불러주고 싶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염불송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A

호스피스 교육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 염불과 진언송 말이죠. 모두들 임상에 적절한 리듬으로 형성된 염불을 배우고 또한 환자에게나 힘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여 녹음이 된 CD를 원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어 여의치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요번 35차 교육 전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마도 9월 10일경에는 임상 염불 CD가 우리들 손에 놓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 CD를 틀어놓고 다시 배워보시는 것 어떠세요? 卍

상담과 치유를 받으실 분은 네이버검색 창
‘능행스님의 꾸따’를 이용하세요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행정실



하루가 달리 높아지는 하늘과 정토마을 마당 가득 고추잠자리가 비행하는 이쁜 가을날입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지난 8월 11일 '제 1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개국의 학자들이 '삶, 죽음 그리고 공존(Life, Death and Inter-Living)'이란 명제 아래 국제생명 포럼과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사장 능행스

님의 기조발표에 이어 '삶과 죽음'에 대해 존 듀얼리 캐나다 칼튼대학 교수, 장익 위덕대학교 교수, 랄스 알베르스 노르웨이 MF대학 교수 등 3명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공존을 위하여' 주제는 헤이드 레겐거 크로우스타드 노르웨이 MF대학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잭 크즈합타담 인도 자나디파 요가대학 교수, 아키라 고토 일본 나젠대학 일류학과 교수등 4명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 자연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명상심리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활발한 질의 응답으로 인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국제 학술 세미나는 매년 우리 대학원의 주관으로 개최 될 것입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역사는 3년으로 참 짧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가 개최한 국제 학술생명포럼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원에서 세계적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질의응답하며 불교심리치유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이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은 소중하고 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8월 25일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위덕대와의 학술교류협정후 첫 석사 6명과 지도자 7명이 졸업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자리해 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석사 졸업생들은 불교와 명상심리치유를 접목시킨 훌륭한 논문으로 학위 수여의 영광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졸업생 13명은 명상심리치유사 1급과 심리치유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와 더불어 타인의 영적 치유와 성장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명상과 심리치유에 부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불교가 다시 조명되어 지고 있고, 불교 명상심리치유가 더욱 많은 부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불교의 교학과 현대심리학을 통합하는 불교심리학 이론의 체계화와 명상수행, 심리상담의 접목을 통한 치유능력 개발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임상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성장과 자아계발을 통한 전문 명상심리치유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卍



아름다운 공존

용정운 | 부다일러스트





참수리 봉사단

아이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모두 참가하여 봉사의 의미를
저마다 가슴으로 새겨가며 임하는 「참수리 봉사회」
회장님의 얼굴엔
늘 미소가 담겨져 있고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은 마냥 행복해 보인다.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까지 안겨 주는 사람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다져 온 듯 하다.



네충신탁과 화공법회

글 | 편집부



정토마을 자재병원 건립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네충신탁 툽뎨우둑 스님을 초청하여 도량재를 베풀었다. 14일에는 지장기도를 통해 영가천도를 봉행하였으며 약사여래 가피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5일에는 약사여래 가피기도 후 화공의식을 베풀어 삼십삼천의 신들과 제불제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질병의 치유와 예방을 기원하고 악업을 소멸하여 보리심을 증장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화공의식은 13가지 재료를 합하여 500명분이 되도록 준비하여 참석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한 후 의식에 맞추어 불의 신에게 올려 태우면서 그 연기로써 시방법계에 공양하는 의식이다. 공양물은 나무 기름 검정깨 쏘와(겉보리) 밥 마디풀 과일 툇마 길창초 보리쌀 밀 콩 조 13가지였다. 13가지의 재료들은 인간세상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들을 지켜주고 정화하며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장할 수 있도록 화공법회를 통해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13가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나무는 위엄, 기름은 부(富), 검정깨는 선업(善業), 쏘와(보리)는 농작물, 밥은 음식의 풍족, 마디풀은 수명, 과일은 자손, 뜰미는 지혜, 길상초는 자재력, 보리쌀은 내적인 힘, 밀은 고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콩은 몸의 힘, 조는 행복의 영원함이다.

화공법회는 몸이 아픈 이들이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고 공덕을 짓는 인연이 되었으며 화공의식 당일에는 약 500여명의 후원자가 함께하여 성대하고 환희로운 법회가 되었다. 卍





정토마을의 인로왕보살 엄수현 간호과장

글 | 편집부

청원 정토마을은 자재병원의 모태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 정토마을 시 작부터 지금까지 불자들의 죽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는 엄수현 간호과장이다. 구화산에 지장보살님이 계시다면 구녀산에는 엄지보살(성을 따라 부르는 애칭) 간호과장이 있다. 능행스님이 천 여 명의 죽음을 동행하는 그 옆에서 함께 한 이는 다름 아닌 엄수현 간호과장이었다.

엄수현간호과장은 2000년 여름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첫 만남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였다. 호스피스 불모지인 불교계에서 호스피스를 모르는 스님과 간호사가 처음 만났었다. 그때 능행스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길이요 보살님도 모르는 길이지만 우리 서로 모르는 길을 배우면서 가자.”라고 하였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 길잡이가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건물만 완성된 상태에서 혼자 출근하여 환자 맞을 준비를 하였다. 간호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보다 더 막연한 시작이었다. 불교에서 처음 시작하는 호스피스였기에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찾고 다른 시설도 방문하면서 분주하고 어설픔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환자가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눈이 쌓여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땐 이티재를 넘어 걸어 서라도 정토마을에 와야 했다. 그래서 365일 밤이고 새벽이고 정토마을에서 걸려올 전화 때문에 그녀의 전화기는 항상 비상대기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을 경우엔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기의 벨소리를 크게 높여 놓아야 한다. 전화기의 호출을 받고 정토마을로 향하는 그녀의 앞엔 무서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끝내는 그 분과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자신이 매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정토마을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

지요. 시간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며 미소짓는다.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밝아지고 삶이 한결 의미있게 된 것 같다고 한다. 지금까지 눈을 감고 달려만 왔던 길을 이제 뒤돌아 보게 되었고 이제 눈을 뜨고 내실을 다지며 한 순간 한 순간을 살고 있다.

정토마을은 많은 이들이 ‘이별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라며 호스피스간호사가 자신의 천직임을 경쾌한 웃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엄수현 간호과장이다. 그녀야말로 진정 호스피스의 인로 왕보살 일 것이다. 卍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 여 환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서로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면서 뒤섞여있다. 사람도 그렇다. 어떤 부분은 내가 그보다 가볍고, 어떤 것은 그가 나보다 무겁게 삶을 생각한다. 그렇게 어울려져서 세상은 보다 좋게 변해진다.

그렇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생의 가벼움과 무거움, 겉과 속이 그 경계선을 남김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 서서 주인공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 그날따라 겹연쩍게 웃고 있는 혜숙아줌마(53세, 말기 유방암환자)의 남편을 보니, 엄청나게 평화로워 보였다. 회진 갈 때마다, 진한 담배냄새 폴폴 풍기면서 “아내가 떠나면 따라서 같이 갈 것 같다.”라고 했던 그였다. 그런데 좀 변했다.

텅수룩하게 자란 그의 수염은 어디서 도를 닦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반짝이는 눈빛 때문일까? 그의 툭 던지는 슬픈 한마디가 어쩐지 편하게 조차 들린다.

“저, 이제는 다 받아 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

도 툭툭 털고 별떡 일어나 앓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받아 들어야겠어요. 아내를 위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조금은 힘들었던 그동안의 돌봄이 헛수고는 아닌가보다 하면서 가슴 벅차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죽이는 의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호스피스를 하면 이런 일이 보람있지 않은가? 혼자 흐뭇해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러고 난 그 다음날 터졌다.

“아니, 그럼 호스피스병동에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샅대질하면서 저한테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환자에게 산소 모니터를 설치해달라고 했다가 송간호사에게 거절당하자, 그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사건은 하나였지만 서로가 쌓인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보였다.

그러나 나는 받아들임의 과정에 있는 그와 돌보던 환자보호자와 연쟁을 하는 간호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스트레스를 표시하는 항목 중 ‘최근 배우자

사망'은 그 지수가 100으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이혼'인 70이다. 임종 직전을 같이하는 배우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두 배를 훌쩍 넘을 것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은 보호자와 생활하는 의료진도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이다.

서로 힘든 것과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상황을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이다.

더러는 가벼워 보이던 것, 하찮던 것, 사소한 성격적 결함이 극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 사람일지 모른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만들어 쓰고 있는 가면이 어떤 방패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곳이 호스피스병동이라는 작은 공간이다.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뜨끔해진다. 왜냐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지친 삶에서 그리고 피로해진 마음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각자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함께 버무려져 살아가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돌아가기도 한다. 버무려져 있다. 사람마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정도는 다르다. 한마디로 상대적이다. 완벽주의자는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까지 그런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역시 상대적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나열이 아니다.

혜숙 아줌마는 7년간 투병 생활한 53세 된 유방암환자이다. 아프기 전에는 유능한 직장 여성이었다. 그것도 연봉 1억씩이나 받는. 완치된 줄 알았던 유방암은 운 나쁘게 지난겨울 머리로 전이 되었다.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검사를 해보니 암이 머리로 재발되었다. 그전까지는 정말 멀쩡했다. 그래서 더 억울했다. 응급으로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치료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없었다. 그 후 호스피스로 왔으니깐, 나하고는 이제 5개월째 치료하고 있다. 어쨌든 그녀는 서서히 상태가 나빠졌다. 언젠가 부터는 걷지를 못하고, 언젠가 부터는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는 말조차 못하기 시작했다. 대학 다니는 막내아들은 이번 학기 휴학을 하고 그녀 옆을 지켰다. 엄마 옆에서 기타도 쳐주고, 노트북으로 고돌이 게임도 해드렸다. 나 역시 아들이 있지만, 저렇게까지 살뜰하게 돌볼 수 있을까 싶어 부러운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화롭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가 임종에 이르는 동안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혜숙아줌마 가족은 예민해했다. 최근 들어 전이된 머리암 때문에 경련을 하는 일이 있고 부터는 부쩍 더 그랬다.

삶의 마지막에서는 때때로 그 갈등은 확대된다. 내가 근무하는 호스피스병동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가 갈등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관자가 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적나라하게 배우고 있다. ㅍ

대문 옆에 피어난 참꽃

능행



조용히 누워 있는 어미에게 어린 딸이 꽃을 꺾어 손에 쥐여 준다. 어린 딸을 홀로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 그 어미의 식어가는 가슴에 어린 딸은 슬며시 함께 드러눕는다. 뼈만 앙상한 어미의 가슴을 만지며 식어가는 어미에게 자신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주고 있나 보다. 강물처럼 출렁이며 아이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있으니 나 역시 눈물이 흐른다.

한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어미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죽어 누워있는 어미의 가슴팍에 온몸을 묻고 나란히 누워 있다. 아버지는 뜰에서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쪼그려 앉아 있다.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은 이제 남편과 딸 둘 뿐이다.

엄마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고,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어린 저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망설이는데, 새들은 눈치도 없이 맑은 목소리로 지저귀고 산사의 풍경 소리는 왜 이리도 청명한 것인자…….

● 엄마, 엄마~.

아이는 조그마한 손으로 어미의 가슴을 만지며 흐느꼈다.

●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아가야! 너는 나의 그림자요, 너는 내 삶의 의미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사랑이란단다.

아내를 살리려고 애쓰던 남편이 아이에게 말했다.

서로의 그림자처럼 함께 살던 비둘기 부부가 정토에 온 것은 지난 늦은 가을이었다. 남편은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였고,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홀로 두고 갈 수 없어 꼭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정토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다. 어쩌면 그렇게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지극 정성일 수 있을까.

구녀산 자락에 참꽃이 붉게 타오르고 매화 향기 가득한 봄날, 보살님께서는 창문 너머 저만치 피어 있는 대문지기 참꽃 두 그루를 보고 기뻐하셨다. 몸은 야윽대로 아위어 빠와 가죽만 덮인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기력이 떨어져 점점 차지는 두 손을 힘들게 모으고,

●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얼마 후, 불 일이 있어 남편이 잠시 아내 곁을 비울 일이 생겼다. 남편은 영 불안했는지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결국 찢기 하나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며 젖 먹은 힘까지 다해 힘겹게 말했다. 모처럼 남편이 자리를 비운 잠깐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 스님, 저 안 울어요. 저 절대로 안 울어요.

마음속으로는 피보다 더 깊은 오열을 쏟아내면서도,
“스님, 저 절대로 울지 않아요. 울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 그래, 그래 울지 마요!

● 스님, 결혼생활 20여 년 동안 내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냥 딸아이를 믿고, 그리고 아빠도 잘 살 것이라 믿고 이젠 가렵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지요……? 전 요즘 꿈만 꾸면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면 정말 행복합니다.

꿈속에서 세 사람의 고운 소녀가 당신을 시봉하고, 당신이 걸어 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히 맞아주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보살님. 아마도 목숨이 다하면 그런 곳으로 갈 것 같라며 무척 행복해했다. 나는 부디 정신을 맑게 하시고, 떠나시면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날 늦은 저녁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 여보…….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편이 아내를 불러놓고 하염없이 우나 보다. 혹 당신 없는 사이에 아

내가 저세상으로 떠날까봐 무척 두려운가 보다. 밤이 새고 나면 부리나케 달려 올 남편. 전화를 끊고나서 아내가 내게 말했다.

● 남편과 딸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어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제발…….

부처님, 이럴 땐 정말 어찌해야 좋습니까? 부처님! 굶어 살피주소서. 남편과 딸아이가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저 보살님을 제발 도와주소서.



며칠 후 나는 남편을 불러 차분하게 말했다. 부인께서 어느 날 혼수상태에 빠지면, 그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부인 마음 편히 가시도록 이야기하시라고. ‘여보! 잘 가거라. 나도 때가 되면 당신 곁으로 가마. 나 잘 살거다. 건강하게 아이랑 잘 살다가 당신 간 곳으로 나도 갈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마라’ 하며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작별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 네, 스님.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분이 앉아 있던 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흥건했다.

사랑하는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짐에 피눈물을 흘리던 보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울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몸이 앙상하게 야위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보살님. 엄마 품에 매달려 그렇그렇 맏히던 아이의 눈물과, 헤어짐에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의 눈물……. 이생에서의 이별과 슬픔은 얼마나 깊고 질기고 아픈 것일까.

저 대문 곁에 핀 참꽃이 제 아무리 예뻐도 열흘을 못 간다 하니, 우리 인생이라고 별수 있으리. ‘만나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애달픈 인연일랑 만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곱고도 아린 가족들의 눈물이 자꾸만 내 눈 속에 후두둑 참꽃으로 피었다가 진다. 卍



청주시청

한줄기 흐르는 땀방울의 의미를 작은 정성으로 낮추시는
청주시청 「단지조성과」님들의 사랑으로 정토마을 뒷산에 자리한 큰밭에
약초며 나무들이 무럭 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늘 고운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시는 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고구마잎나물

연호, 만옥스님

“노스님, 줄기가 아니고 잎이라고요?” “그래, 질기지 않은 연한 잎으로 따래이~”
고구마줄기 반찬은 많이 먹었지만 고구마잎 반찬은 생소했습니다. 밭 한쪽에서
열심히 잎으로 줄기를 뺏어나가고 있는 연한 고구마잎을 한소쿠리 따왔습니다.

“연한 줄기와 잎은 그냥 데치면 되고, 조금 쉰 줄기는 껍질을 벗기면 된대이~”

“간장에 무쳐도 되고 된장에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도 된대이~” “노스님, 오늘은
집간장에 무쳐볼까요?” “그래라~ 전을 부쳐도 쫄득하니 맛있고, 찌서 찜을 싸먹어
도 맛있대이~”

“우와~ 고구마도 뿌리, 줄기, 잎 버릴게 하나도 없네요?”

“제철에 나는 것은 뭐든 좋은 기라. 조금만 눈여겨보고 부지런하면 반찬걱정 안
해도 되는기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으로 쓰여지는 고영양 기능성 식품인 고구마잎에는



단백질과 칼슘·철·아연 등,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안질환 예방성분으로 잘 알려진 루테인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재료 : 고구마잎, 집간장, 깨소금, 통깨, 참기름, 소금

1. 고구마잎을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다.
(연한 잎은 살짝만 데치도록 합니다.)
2. 찬물에 행군 후 물기를 짜고 양념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다.
(데친 후에 물기를 짜려고 하니 고구마잎이 미끄덩거리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버무릴때에 오래 주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여름 끝자락, 가을의 시작에 감칠맛나는 고구마잎나물로 가족들 입맛을 돋우어 주세요.

흰 연꽃 핀 정토마을의 여름

혜연 | 정토마을 스님

유난히 더운 올여름이었다.

이곳 정토마을에 올해도 큰 고무대야 안에
서 극락세계의 상징적인 꽃, 연꽃이 하얗게 두
송이 피었다. 눈 맞고, 얼음 얼어 죽은듯했는데, 봄
이 되어서는 겨우겨우 싹이 보이고, 자라는 듯 마는듯
하더니, 한 여름의 태양과, 정토의 염불 소리 듣고, 참으로 놀랍
게도 어느 날 문득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눈부시게 피어났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하얀 광채의 빛을 받았다.

정토마을. 이곳을 다녀가시는 환자와 인연 있는 모든 불자님들은 정토에 태어날
씨앗이라도 심어가시는 분들이라고 느껴진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채,
각자 자기 업대로 살다가 또 다른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범부 중생의 삶이 아닌
가. 그 삶의 마지막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부처님께 의지 하고
픈 간절함이 되어, 환자와 그 가족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이다.

인연이 다하여 가야만 할 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
운 삶. 결국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것.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나도 수많은 전 전생을 겪으면서, 나고 죽음을 반복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슬픔이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일 게다.

60대 초반의 폐암 말기 환자가 복수가 찬 상태에서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오셨다. 복수로 인해 배가 불러 거동을 간신히 하면서도 법당에 앉아, '나무아미타불' 을 크게 부르면서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

임종이 가까워져서는 침상에서만 계셨는데 임종 하루 전, 환자의 남편과 같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문득, 감은 눈을 뜨시더니 서 있는 나를 쳐다보고는 말씀하셨다.

“스님 서 있는 데가 환하니 밝더니 처음에는 스님 얼굴이었는데 나중에는 부처님으로 바뀌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이 보살님이 신심이 깊으셔서 매우 상스러운 길조를 보시는구나.' 생각했다. 보살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아주 하얗고 깨끗한 커다란 목욕탕을 보았어요.”

“그 곳이 어떤 곳으로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니

“이다음 생을 살아갈 곳인 것 같은데... 그 큰 데를 청소를 해야 하니 싫네요.” 하신다. 순간 마음이 아련했다. 평생 일만하고 살면서 힘들었던 당신의 고단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곳은 청소는 안 해도 되고... 가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요.”라고 하니 반갑고 기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분의 마지막을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서 잘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임종 순간을 지켜보지 못해, 너무 아쉬움이 컸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부디 극락왕생 하기를 바랍니다.’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4시간동안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며 그분을 정토로 떠나보내 드렸다.

정토마을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 임종 시에는 아미타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받아, 서방 정토 극락세계 구품 연화대에 왕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아미타불 卍



DATE

PAGE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

정미혜 | 후원자

청사포 해월정사에는 적광전과 성철스님 머무셨던 고심당이 ‘ㄱ’ 모양으로 맞닿고 있다. 그 사이에 계단이 놓여있다. 그날도 나는 성철스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봉훈관 청소를 마치고 예불을 들어가려고 적광전 앞을 지나가다 전화를 한통 받았다. 간절히 원하고 있던 어떤 일이 좌절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화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사시예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 바닷가 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무심히 낮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때 내 머리 위로 푸드덕거리는 소리 들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큰 학이, ‘ㄱ’ 모양의 적광전과 고심당을 뒤덮는 큰 학이 하늘 위에 있었다. 학이 너무 커서 놀랐고, 학의 깃털이 너무 희어서 눈부셨고, 학의 부리가 너무 선명한 선홍색이라 그야말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사실 학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므로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천배 100일 기도를 하는 중이었고 70일이 넘었던 어느 날, 그 날은 부산날씨에는 보기 드물게 눈발이 휘날리는 날이었다. 관음전 창문사이로 그 눈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이 미끄덩하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천배 백일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 절뚝거리며 다닐 때였고 밤마다 무릎이 쭈셔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아침에 내 무릎에 뭔가 기름칠을 한 것처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니 그날 천배를 하여도 무릎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통증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천배를 아주 가뿐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삼천배 21일을 수행해도, 가끔가다 삼천배를 해도 허벅지 근육통은 있어도 내 무릎에는 통증 無였다. 사



실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를 다녀 절을 하다 보니 어린나이에든 관절이 불편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릎이 아픈 일은 전혀 없다.

삼배하다 갑자기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몸뻐를 적시던 그 날도 내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았다. 보통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눈이 충혈되거나 통통 붓거나 하는데.....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가끔 절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고 한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뒤 많은 신비한, 신기한 소소한 경험들을 겪게 되었다.

작년에는 10달동안의 새벽기도에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었고 불면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어느 날 그 기도를 놓았을 때 나는 비로소 사소하지만 나를 괴롭혀 왔던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우암사 여오스님께서 병상기부라는 것을 설명해주셨다. 요지는 어느 스님이 불교호스피스 병원을 설립하셔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사정이 딱하다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8만원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안내에 따라 기부를 했다. 그리고 나니 정토마을에서 능행스님의 글 '점점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 않게' 그리고 묘법연화경, 소식지 '보디사트바'가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무심코 집어들었던 능행

스님의 책을 1시간 만에 후다닥 읽고 나서 스님의 깊은 뜻과 선의 실천에 공감되었다. 그 후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로 선하게 느껴져서 그 인연이 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정토마을의 불교호스피스 자재병원에 관해 설명도 하고 이런 기부도 있으니 한번 실천해보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 '보디사트바'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 실제 능행스님을 뵈는 적도 없고, 자재병원에 가본적도 없지만 늘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는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읽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정토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 해피바이러스가 되길 바라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의 경우 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조그만(정말 얼마 안 되는) 기부를 하는 편이다. 왠지 그 돈에 나의 썩가 실려나가는 기분이 들곤 한다.

나는 헤르만 헤세의 싯달타에 나오는 뱃사공 바수데바와 같은 존재를 늘 갈망하나 실제 존재할 것 같지 않으므로 내 속에 있는 다른 나와 대화에 늘 골몰하는 편이다. 고오빈다의 수행보다는 싯달타의 고행이 주는 삶의 깨달음에 공감하며 결국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나의 소소한 깨달음에 늘 감사하고, 참회하고, 기도한다. 卍

정토마을에선...

동석 |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

나의 호스피스 봉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운문사 강원의 봄방학은 1달밖에 되지 않아 매우 짧다. 이론으로는 호스피스교육을 받았지만 임상실습을 하지 못한지라 꼭 가고 싶었다. 죽어가는 환자 곁에 있고 싶다는 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사스님께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살겠노라는 약속을 남기고 정토마을에 들어왔다.

우선 제일 먼저 사무실에서 만난 총무보살님이 처음 나를 안내해준 곳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치 펜션처럼 보이는 정토마을 안에 있는 작은 법당이였다. 마침 도감스님께서 급한 일로 지방에 가셔서 기도가 끊겼었다며 당장 도량석, 종성 등 모든 법당기도를 부탁했다. 다음으로 안내 해준 곳엔 여간호과장님이 계셨다. 잘 오셨다며 어디서 오시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임종할 환자가 있으니 임종기도를 해달라며 임종기도를 부탁했다. 어리둥절한 나는 오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제자인데 못한다고 해본적도 없다 할 수는

없었다. ‘수처작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호스피스교육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 해드리면 되는 거겠지 “네! 기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짐도 풀 새 없이 환자실로 안내되었다.

심장박동기를 켜 놓은 채 의식불명인 연세 많은 신 처사님 한 분이 누워계셨다. 그 옆을 직장도 그만두고 지키고 있는 미혼의 젊은 따님이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그때부터 환자의 머리맡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 책을 꺼내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새벽에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이윽고 아침 8시가 다되자 환자는 다시 소생하듯 깨어났다. 근근이 안 떠지는 눈을 애써 뜬 환자 옆에서 따님은 “아빠! 스님이셔” 하는 이 한마디에 바짝 말라 들어간 앙상한 모습으로 어린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짓던 환자의 천진한 미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또 다른 환자는 키타야수 동백염이라는 병

명도 낮은 병을 앓고 있는 비구니스님이셨다. 11년 전 쯤에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셨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한 거동이지만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며 사 진 찍기를 좋아 하셨던 스님이었다. 어느 날 공 양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후원에서 흘러나온 강한 라면 냄새는 내부에 진동하였고, 내가 영 양이 있게 잘 짜여진 식단의 음식을 담은 식판 을 가지고 갔는데도 말을 할 줄 아는 환자들은 밥이 싫고 라면이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다. 특히 그 비구니스님께선 안 먹겠다며 식판을 자꾸만 옆으로 밀쳐냈다. 라면이 먹고 싶다며 심통을 내기 시작했고, 할 말을 잃은 내가 가만 히 서있자 간호사님이 오셔서 예전에도 조금만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혈토하시며 돌아가실 뻔 했는데 또 달라하시냐며 핀잔을 주었다. 그런 간호사가 곧 나가자 스님께선 나에게 발음도 잘 안 되는 말로 “나, 라면 국물 조금만 몰래 따 라다주면 안될까?” 라는 말쑤를 애원하듯 거듭 하셨다. 가슴이 아려왔다. 가슴이 실제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다. 시주물을 받아먹으며 그동안 나는 얼마나 뻔뻔하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 히 살아왔는가, 실컷 자문을 했다. 나만 보면 차타고 밖에, 시장구경 가고 싶다고 하셨다.

이후 정토마을에서 돌아온 후에 이 스님으로 인해 나는 또 한 번 크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 건이 있었다. 바로 정토마을을 운영하시는 스

님의 『이 순간』이란 책을 돌아와 읽으면서였 다. 책 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재병원 을 짓기 위한 염원을 담고 모금을 시작하기 직 전에 책의 저자스님은 어떤 스님에게 천일기도 를 맡겼다. 거동이 불편한 그 스님은 본인이 해 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 셴고 나중엔 아예 몸이 너무 안 좋아 다른 사람 에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법당에 들어가 땅에 놓인 목탁을 한손으로 내리치며 발음도 안 되 는 힘없는 음성으로 천일기도를 무사히 마쳤다고 하셨다. 그런데 상상도, 연결도 안 되는 그 스님이 바로 내가 만나고 온 환자스님이셨다. 그 스님이 내가 만난 스님이 맞는가를 몇 번이 고 번갈아가며 떠올려 보았다.

대체 굳어져 퍼지지도 않는 한쪽 팔과 질질 땅에 끌려 다니던 한쪽 발과 힘없는 음성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나중에는 과연 사지 멀쩡한 건강한 젊은 스님 들도 잘 해내기 힘든 천일기도를 해 내신 것에 대해 같은 수행자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부끄러 워 눈이 툭툭 부를 정도로 내내 눈물이 흘렀다. 그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하 니... 스님, 극락왕생 하시길 바랍니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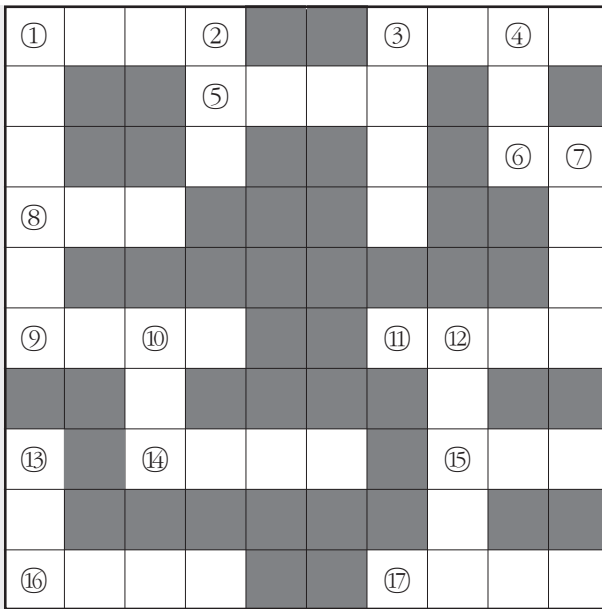
새둥우리 선사

최영순 | 만화가



◎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역새발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잡학과 시사,
그리고 불교용어도 배울 수 있는
퍼즐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가로 풀이

- 하늘은 높고 땅은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르는 말
- 쇠를 먹고 산다는 상상의 동물
-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
-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에서 종교의례를 거행할 때나 명상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그림
-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말
- 통일 신라 시대, 신문왕 때의 전설상의 피리. 문무왕이 죽어서 된 해룡과 김유신이 죽어서 된 천신이 합심하여 용을 시켜서 보냈다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 판판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옷이나 천의 구김살을 문질러 펴는 기구
- 삼보 사찰의 하나, 송광사를 이른다

-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로 풀이

- 전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옳지 않다, 천 번 만 번 부당하다는 뜻
- 출가하여 승려가 지켜야 할 348가지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
- 부처님의 제자중 지혜제일로 불리는 제자
- 속세를 떠나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편안하게 삶
- 한국 전통 현악기의 하나,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붙인 통 위에 여섯 개의 줄을 걸어 만든다
- 서울특별시 종로 2가에 있는 3·1 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공원
- 불교의 삼보인 부처, 교법, 승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가로정답

간지농간 ① 불사육부 ② 미라크 ③
해룡과 김유신 ④ 불사육부 ⑤ 해룡과 김유신 ⑥ 해룡과 김유신 ⑦
판판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옷이나 천의 구김살을 문질러 펴는 기구 ⑧
삼보 사찰의 하나, 송광사를 이른다 ⑨

세로정답

음복록 ① 불사육부 ② 미라크 ③ 해룡과 김유신 ④
해룡과 김유신 ⑤ 불사육부 ⑥ 해룡과 김유신 ⑦ 해룡과 김유신 ⑧

Bodhisattva



1 CPE센터들 정토마을 소풍 (7월 20일)

한국CPE소속센터들이 함께 모여 시설방문을 하며 센터들끼리 교류와 소통을 열어가는 정토마을 소풍이 개최되었다. CPE를 통해 자신의 여정과 환자들의 돌봄을 공유하며 각 종교에 맞는 영적 돌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 35기 호스피스교육 (7월 28일~8월4일)

35기 교육생 50여명을 모시고 6박 7일간의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호스피스 수행' 을 개최하였다.



3 8월11일 마하보디 대학원 국제학술대회

마하보디명상심리 대학원 주최로 제 1회 국제학술대회-생명포럼을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3층 스코필드 홀에서 개최하였다. 주제는 '삶, 죽음 그리고 공존-현대사회에서의 생명의 재조명' 이었으며 세계적인 석학인



4 네충신탁 화공법회 (8월 15일)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신탁을 맡고 있는 '툼텐우둑스님' 을 모시고 정토마을은 자재병원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며 지장기도를 통한 도량제와 약사여래 가피를 청하는 화공법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회에는 500여명의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약사여래의 가피로서 질병의 치유와 예방을 기원하며 악업을 소멸하고 깨달음에 나아감에 장애가 없는 가피를 받는 장이 되었다.



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졸업식 (8월 25일)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위덕대와 학술교류협력체결 후 첫 석사 학위 수여식 및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마하보디대학원은 석사 6명 지도자과정 6명 총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⑥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학기 개강 (9월 15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9월 15일을 기점으로 2학기 개강을 시작하며 명상과 치유를 통한 상담사를 배출하기 위한 도량을 펼쳐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사이코드라마, 명상과 인과계 등의 특강을 준비하여 학생 스스로에게는 수행이 되고 전문성을 성장하는 장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⑦ 마하보디 CPE센터 가을학기 개강 (9월 16일)

마하보디 CPE센터는 9월 16일부터 8명의 교육생과 함께 가을학기 '마음돌봄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⑧ 법화경기도 (매월 4째주)

법화경 철야기도가 철야정진기도에서 집중기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재가자가 중심이 되서 염불을 끌고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 법화경의 모임을 '법화 자재회'라 명명하게 되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법화경을 독송하는 독송회의 모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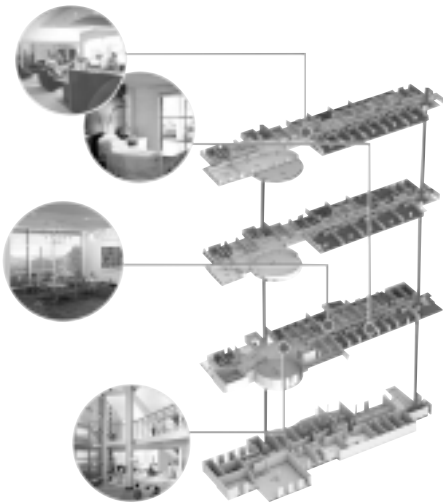
⑨ 대만 공승법회 성지순례

대만 불교의 최고성지인 불광사에서의 공승법회를 참석하기 위해 88명으로 결성된 정토마을 자재병원 성지순례팀은 4박5일의 공승법회를 통해 청정한 공양식식에 참관하는 한편 자재병원 견학과 법고산사를 참배하는 등 대만불교의 실천과 수행이 함께 아우러진 불교를 보고 배우며 신심을 다지는 계기를 삼았다.



- 개원일: 2013년 5월 예정
-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3,306㎡ (1,000평)
- 병상수: 108병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완화의료전문 자재병원



3F 승가병동

2F 통합의료재활병동(한의학, 대체의학 접목)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B1 임상병리실, 자원봉사자실



자재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재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자재병원 사무국 <http://jungtoh.org>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55-8588(대) FAX. (052)254-2347

[정토마을]

정토마을

- 개원일 : 2000년 10월 26일
- 형 태 : 독립형 호스피스
- 병상수 : 15병상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입소대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
- 운영시간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방문/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 입소

- 신청 접수시 환우분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토마을 호스피스 사무국 hospioef@cpebud.com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 FAX. 043)298-1457



“진정한 마음돌봄 전문가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16주간
- 일 정: 봄·가을학기: 매주 일요일 / 여름학기: 토·일요일
- 시 간: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인 원: 8명 (정원)

2013년 봄학기
금요반/일요반
개강!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란?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하여 마음돌봄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마음돌봄이란?

마음의 고통중에 있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입니다.



마음돌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삶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돌봄의 대상입니다.(예:환자, 보호자, 사별자, 중독자, 재소자, 이주민, 행려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전문적인 마음돌봄이 요구됩니다.(예:병원, 학교, 군대, 교도소, 경찰서, 가정, 직장, 상담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교육 후에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결실은 마음돌봄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 리더쉽, 자기돌봄능력, 대인관계기술, 상담기법 등). 또한 학생은 교육후에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전문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CPE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정토마을 언양 마하보디센터 임상보디사트바교육(CPE)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번지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교육문의 Tel : 052)255-8520~1 • <http://jungtoh.org>

36번째
불교호스피스수행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36기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1월 6일 (일) ~ 1월 12일 (토) 6박 7일
- ▶교육대상 : 사부대중
- ▶교육정원 : 56명
- ▶교육비 : 65만원 (교재비 포함)
국민은행 713701-01-140961 (재)정토사관자재회
- ▶접수마감 : 2012년 12월 20일 도착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4) 2매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 ▶접수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전화 / 052-255-8521(담당: 이영실 팀장)
fax / 052-264-0209
홈페이지/ www.jungtoh.org 통합검색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아미타호스피스회
- ▶주관 :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매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총회 및 3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는 협회 창단 3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호스피스인, 당신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사례발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호스피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과 돌봄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호스피스인,
당신에게이런 도움이 필요 합니다.”



오시는 길



- ▶ 총회(법회) 13:00~14:00
- ▶ 창립3주년 기념 세미나 14:00~17:00

▶ 일시 : 2012년 10월 20일(토) ▶ 장소 : 대구 한국불교대학(구.영남불교대학)

주제발표

- 1) 기조발표:상임이사 스님
- 2) 사례발표:호스피스 활동사례

- 3) 사례발표:수혜자 가족 사례
- 4) 질의응답

정토마을 장터 OPEN

정토마을 행복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정토가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된장 1kg 15,000원



마테차 200g 20,000원



우영차 200g 20,000원



콩헵 12,000원



유기농아마씨
300g 15,000원



3년발효 산야초효소
375ml 25,000원



주 | 문 | 전 | 화 **052-255-858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아띠울

아띠울출판사 <http://jungtoh.org>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55-8520~1 FAX. (052)264-0209



settled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지은이: 능행 | 펴낸곳: 아띠울
| 값: 15,000원

불교수행자들이 호스피스로 일하는
정토마을에서 천여 명의 죽음을 배
웅해 온 능행스님의 산문집.



이순간

지은이: 능행 | 펴낸곳: 한겨레출판
| 값: 12,000원

호스피스가 곧 수행의 도구라는 능
행스님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죽
음과 온전히 직면할 때 이 순간의 삶
이 바로 선다”는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펴냄.



불교임상기도집

펴낸이: 능행 | 펴낸곳: 아띠울
| 값: 30,000원

병상에 있는 환자와 임종을 준비하
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의 교과서.



임상기도(CD)

펴낸이: 능행 | 펴낸곳: 아띠울
| 값: 15,000원

영혼을 밝히는 빛의 소리

책주문 052)255-8588 / 052)255-8520



정토마을 자재병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중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됩니다.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가족되기

■☎(무료): 080-255-8588 ■홈페이지: <http://jungtoh.org> ■방문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화 그 가족들에게희망의 기금으로
-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여 집니다.

1인 1만원 1계좌 3만 후원자 운동

-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 한 사람의 후원은 한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 (jungtoh.org)를 통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동삼계좌

국민은행 713701-01-001909
농 협 401131-51-080245
예 금 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713701-01-132115
JUNGTOHMAEUL



언양 사무국 TEL.(052)255-8588(代) FAX.(052)254-2347
충북 사무국 TEL.(043)298-2258(代) FAX.(043)298-1457



정토마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재병원 함께만들기 1	불교최초 완화의료전문 자재병원 건립기금 ■ 건립기금 나눔계좌 • 농협 815039-55-003185 • 예금주: 정토사관자재회	
자재병원 함께만들기 2	불교최초 완화의료전문 자재병원 병상모연 ■ 병상모연 나눔계좌 • 농협 815039-55-003185 • 예금주: 정토사관자재회	
자재병원 함께만들기 3	꺼져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한 생명 살림 등 ■ 한생명 살림등 나눔계좌 • 농협 401120-51-017461 • 예금주: 정토마을	
자재병원 함께만들기 4	자재병원 희망시멘트 모연 ■ 희망시멘트 나눔계좌 • 농협 401120-51-017461 • 예금주: 정토마을	

자재병원
함께만들기



법화경 천일기도

삼천송이의 연꽃을
법계에 공양 올립니다.

※ 기도비는 병상·의료기 자재구입에 쓰입니다.

CMS(자동이체) · 전화 · 방문접수
농협 815039-55-003185
(정토사관자재회)



천일 愛 행복기도

천일 3분 기도명상으로
나와 세상을 정화합니다.

※ 기도비는 병상·의료기 자재구입에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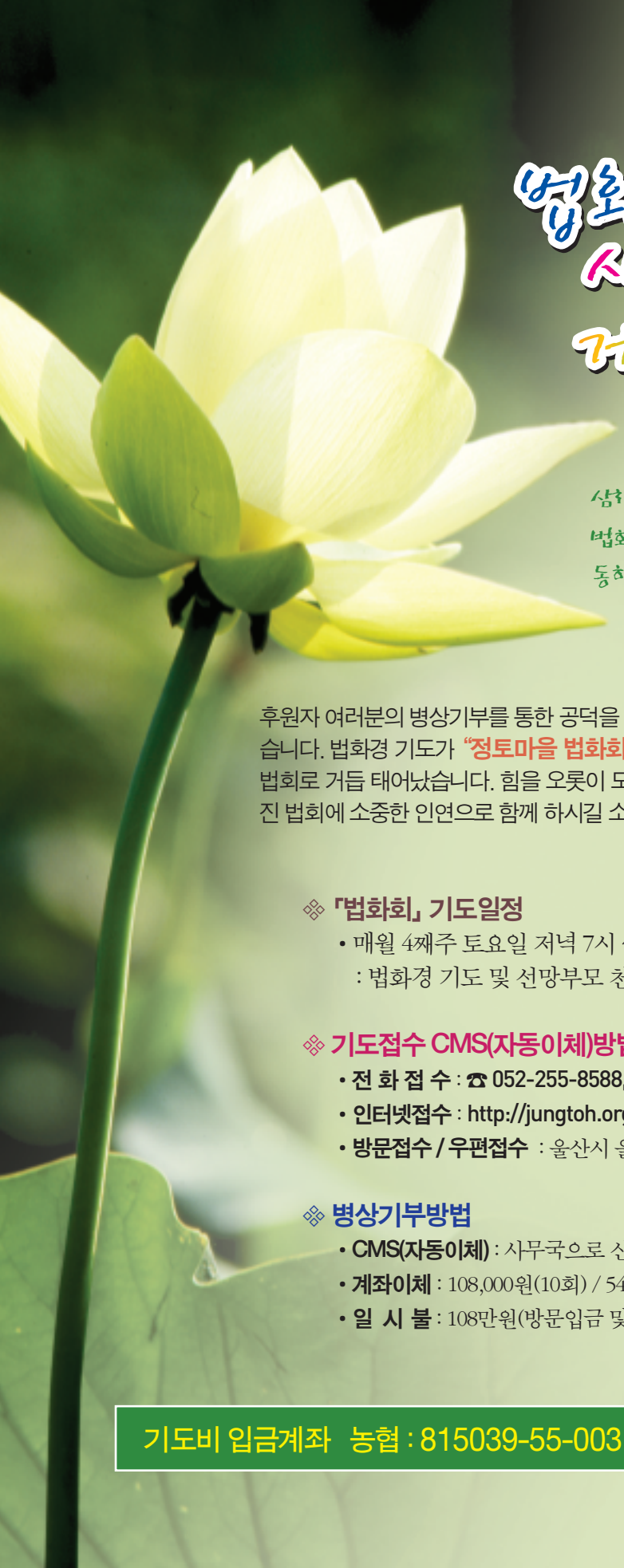
CMS(자동이체) · 전화 · 방문접수
농협 815039-51-038048
(정토사관자재회)



자재병원 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55-8588 FAX, (052)254-2347

자재병원 홍보대사 텔런트김혜옥



법화경 기도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삼천송이 연꽃을 찬란히 피울 수 있도록
법화경 기도의 여정에 간결한 마음으로
동행인을 초대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병상기부를 통한 공덕을 법화경 천일기도를 병행하여 축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기도가 “**정토마을 법화회**” 로 새로워졌고, 철야법회에서 저녁정진 법회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힘을 오롯이 모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법화경 기도정진 법회에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 「법화회」 기도일정

- 매월 4째주 토요일 저녁 7시 ~1시까지
: 법화경 기도 및 선망부모 천도의식 봉행

❖ 기도접수 CMS(자동이체)방법

- 전 화 접 수 : ☎ 052-255-8588, 043-298-2258 팩스 052-254-2347
- 인터넷접수 : <http://jungtoh.org>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 병상기부방법

- CMS(자동이체) : 사무국으로 신청
- 계좌이체 : 108,000원(10회) / 54,000원(20회)
- 일 시 불 : 108만원(방문입금 및 통장입금 가능)

기도비 입금계좌 농협 :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